

尹世元 編 (1)

■ 약 력

- 文敎部 技術敎育局 原子力課 初代課長
- 原子力研究所 原子爐工學部 初代部長
- 서울大, 연세大, 경희大 敎授 및 경희大 副總長
- 韓國物理學會 會長
- 成和神學校 校長 (현재)



尹世元 博士

朴 : 오늘 바쁘신 시간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尹 博士님은 우리 政府에서 처음 原子力事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최초의 行政實務를 責任지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原子力事業이 國家 발전에 있어서 어떠한 중요한 意味를 갖는다면 오늘의尹 博士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記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尹 : 돌이켜 생각하면 약 30年前的의 이야기인데 그 當時에는 내 나름대로 어떠한 希望과 野心을 갖고 30代의 젊은 情熱을 전부 쏟아서 일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을 다시 回想하며 이야기 하게 되니 매우 感懷無量하고 또 이러한 機會를 만들어 주신 朴先生님에 대하여 대단히 感謝하게 생각합니다.

朴 : 오히려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알고 싶은 것은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에 봉직하다가 어떤 動機와 經緯로 1956年 3월에 新設된 文敎部 技術局 原子力課의 初代課長으로 轉職하시게 되었는데 우선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尹 : 지금 그 質問에 答하려면 그 전에 原子力課가 新設된 經緯에서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朴 : 그러면 그 이야기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尹 : 原子力문제에 대하여 政府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54년부터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政府가 능동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때의 國際환경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니되게 만든 겁니다.

그 첫째는 1954년 7월, 미국 정부로부터 「原

子力의 非軍事的 利用에 관한 韓·美協力을 위한 協定」을 체결하자고 提議해 왔는데 이것은 우리 政府로서는 뜻밖의 일이었지요.

둘째는 1955년 美國 아이젠하워 大統領이 유엔總會에서 「原子力平和利用을 위한 國際 方案」을 제창함과 동시에 「原子力平和利用을 위한 國際會議의 開催」를 제의해서 同年 8월8일에 제네바에서 開催하게 되었는데 이 會議에 韓國代表를 보내 달라고 招請狀이 온 겁니다. 이것도 뜻밖의 일의 하나였지요.

첫번째의 「協定」은 1955년 12월에 우리 國會의 認准이 있었고 두번째 「國際會議」에서는 朴哲在, 尹東錫, 李基億(美國留學中, 이에 合流)이 參席했습니다만 이 때에는 이처럼 原子力에 관한 국제 움직임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일들이 자주 생겼던 겁니다.

當時의 李承晚 大統領도 자주 이러한 報告를 받게 되고 특히 大統領을 위시해서 外務長官이나 文敎長官도 이에 대한 受容態勢를 빨리 갖추어야 하겠다는 것을 절실히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이때 이에 대한 「案」을 文敎長官에게 建議한 것이 우리입니다.

朴 : 그 問題에 대하여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尹 : 네. 이러한 問題와 내가 原子力課長으로 가게 된 緣由와 관계 있습니다.

當時의 文敎部 技術敎育局長은 朴哲在 였는데 1955년 8월 國際會議에 參席하고 돌아오면서 미국 原子力委員會에서 發行한 「Research Reactor」란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때에는 原子力에 관한 專門書籍을 구하기 어려워

서 이 분야에 대한工夫를 하고 싶어도 책이 없어서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朴局長이 나보고 「이 책을 중심으로 <Study Group> 같은 것을 만들어 공부하면 어때?」 하고 말씀하길래 그말에 나는 아주 共感이 있습니다.

원래 朴局長과 나는 전부터 師弟之間도 되고 특별한 親分을 갖고 있어서 原子力문제가 나오면 기탄없이 물어도 보고 이야기하는 사이였고 또 내가 도울수 있는 일이라면 항상 도와드려야 할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한대로 그 때부터 Study Group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이 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金俊明(國防科學研究所), 愼在植(國防科學研究所), 閔光植(空軍), 李鎮鐸(空軍), 崔昌善(空軍), 이수호(空軍), 金基秀(空軍), 金熙圭(서울大學校 師範大學), 玄京鎬, 朴惠一, 그리고 나왔습니다. 이때가 10월頃이고 그 후에 李昌健, 鄭求洵, 李永在, 李炳昊 등이 들어 왔던걸로 기억합니다.

레이몬드·뮤레이의 「Introduction to Nuclear Science」란 책도 얻어서 前述한 「Research Reactor」란 책과 같이 이것을 Text Book으로 해서 朴局長室과 國防科學研究所 등에서 輪讀도 하고 세미나도 하는 한편 우리의 原子力法과 原子力行政體制에 관한 연구와 토론도 열심히 했습니다.

1957년 1월頃에 原子力法草案을 만들어 이것을 朴局長에게 드리면서 우선 文敎部 技術教育局 안에 原子力課를 新設하는 것이 좋겠다는 意見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에는 정부도 이러한 업무를 專担하는 行政部署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閣議에서 쉽게 文敎部の 發議대로 可決되었고 그래서 1956년 3월 9일자 原子力課가 탄생한 것입니다.

朴: 그런데 原子力20年史日誌를 보면 尹博士님이 課長으로 任命된 것이 1957년 10월인데 거의 1년6개월의 空白이 있었던 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尹: 네. 그게 좀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原子力課가 탄생했지만 그 때에 나는 서울大學校에 봉직하고 있었으므로 꼭 行政政府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또 동년 4월 9일에 金熙圭와 같이 미국 Argonne研究所에 1년

동안 공부하러 떠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朴局長이 나에게 대하여 마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도 말하지 못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떠날 때까지 나에게 아무런 힌트나 요청도 없었고 그렇다고 原子力課長을 누구로 하겠다는 복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니다.

나는 예정대로 4월에 미국으로 떠났으니까 그 후의 것에 관해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朴: 두 분이 미국에 가게 된 것은 政府의 특별한 계획이나 임무를 갖고 간 것입니까? 그저 공부하고 오라고 특별히 指名해서 간 겁니까?

尹: 그것은 미국 정부에서 國立Argonne研究所에 原子力研究生을 4명 파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文敎部는 「Study Group」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서 4명을 추천한 거죠. 또 아무리 사방을 둘러 보아도 이 「Study Group」이 그 당시에 原子力에 관심이 제일 컸고 또 좋은 분들이 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4명이 金熙圭, 金俊明, 閔光植, 나왔는데 金俊明과 閔光植은 그만 身體檢査에서 不合格되어서 못가게 됐습니다. 金俊明은 당시 이 모임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제일 열성적이고 노력하였습니다만 과거에 肺를 앓았던 흔적이 나타나서 아주 아깝게 됐지요.

朴: 그러면 原子力課는 新設됐는데 課長代理로 일할 사람도 없었습니까?

尹: 그때 제가 있을 때에는 課長 아니라 그 이상으로 朴局長을 도와드렸는데 내가 그래도 무심히 떠날 수 없어서 李永在를 추천하고 그분에게 내 대신 잘 도와드리도록 부탁했지요.

朴: 그러면 原子力課에는 어떤 職員들이 있었습니까?

尹: 李鎮澤이 事務官(係長級), 技術職의 技佐(事務官級)로 玄京鎬가 있었고, 그리고 鄭明朝, 李敏廈, 鄭君陽, 黃仁萬, 金泰煥 등 6~7명이 있었으며 囑託으로 李永在, 李昌健 등이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朴: 그러면 李永在가 課長代理格으로 일한 셈이군요.

尹: 그런 것도 아닙니다. 원래 李永在가 去年 11월경에 나를 찾아와서 空軍에서 除隊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身上問題를 상의하기에, 우리나라

原子力사업의 장래도 유망하니 나와 같이 朴局長을 도와 여기에서 일하자고 권유하여 같이 일하게 됐는데 열심히 나와서 일해 주었기에 내대신의 역할로 朴局長님에게 추천하였을 뿐입니다.

朴: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1년동안 공부한 상황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尹: 1956년에 國立 Argonne研究所에서는 海外研究生들을 미국政府의 政策에 따라 처음 받았는데 1년에 2회의 修了生을 내게 되어 있었읍니다.

金熙圭와 나는 그 第2回生이였습니다. 1년의 半學期는 大學에 가서 공부하고 나머지 半學期 동안만 Argonne研究所에 와서 實習과 講義를 듣게 돼 있었읍니다.

그때 나는 노스캐롤라이나大學에 가서 공부하고 金熙圭는 펜 스테이트大學에 가서 공부했지요. 그리고 半學期 동안 Argonne研究所에 돌아와서 原子炉에 대한 講義도 듣고 原子炉稼動에 대한 여러가지 實習도 했지요.

이렇게 1년 동안 공부하고 돌아 온 것이 1957년 1월입니다.

朴: 1월에 돌아왔는데도 곧 課長으로 任命되지 않았군요. 왜 이것이 10월까지 가게 된겁니까?

尹: 글썄요. 그때에 나는 공부할 생각만 했지 官吏가 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고 마땅한 사람이 있는것도 아니어서 그렇게 時日이 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朴: 그러면 어떤 契機로 課長이 되신 겁니까?

尹: 내가 미국에서 돌아오니까 李永在와 玄京鎬가 곧 英國으로 研修하러 간다고 해요. 내가 돌아왔으므로 누구를 특별히 課長으로 任命하지 않아도 그렇게 不便한 것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 때 나는 大學講義가 끝나면 每週3일은 文敎部에 나가서 내가 할 일, 내가 도울 일을 했고 또 實務行政할 사람들도 5~6名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9월 9일 파리에서 UNESCO 主催 「放射性同位元素 利用國際會議」가 있었는데 나와 奇龍肅(서울大學校醫科大學) 權寧大(서울大學校文理科大學), 李鐘珍(同), 李春寧(서울大農大) 5명이 韓國代表로 파견되었습니다. (이때 파리 留學중인 生理學의 李根培가 合流). 이 會議를 끝마치고 돌아오니까 10월 1일부로 發令됐어요. 나하고 한마디 相議없이 不在中에

發令을 낸 겁니다.

朴: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尹: 곧 崔奎南 長官(崔長官은 나의 恩師였읍니다)을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물었더니 「글썄, 자네 밖에 할 사람이 없어. 아무소리 말고 나를 좀 도와 주어야 해.」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거역할 수 있어야지요.

그래서 自意半 他意半으로 서울大學校에서 副教授로 昇進한 후 原子力課長을 하게 된 겁니다.

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課長으로 赴任하면서 부딪힌 일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尹: 참 할 일이 많았습니다. 原子力行政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 하는 일이었고 또 이에 대한 經驗을 가진 사람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특별한 專門家도 없었으니까요. 더욱 나自身은 行政經驗이 없어서 처음에는 아주 漠然했읍니다. 약 6개월 지나니까 行政이란걸 좀 알게 되더군요.

우선 原子力課에서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면 첫째, 原子力法과 職制를 만드는 일, 둘째, 人材養成하기 위하여 留學生 派遣하는 일, 셋째, 豫算確保하는 일, 네째, 敷地選定하는 일, 다섯째, 原子炉購入하는 일 등이였읍니다만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課長으로 赴任한지 1개월 지난 11월경이라 記憶합니다만 景武臺(지금의 靑瓦臺)에서 李承晚 大統領이 들어 오라는 命令이 있었읍니다.

朴: 그거 아주 재미있는 秘話같은요.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尹: 그래요, 재미있는 秘話지요. 景武臺로 들어오라는 時間에 들어 갔더니 첫마디가 <자네 原子力을 공부했다지.>

<네, 좀 공부했읍니다.>

<됐어, 그럼 자네 原子力에 대한 計劃을 잘 연구해서 잘 해줘. 정부도 잘 밀어 줄거야. 研究所를 지을 場所는 鎭海도 좋아. 더 좋은 곳이 필요하다면 그런 곳을 더 찾아 보게.>

하고 여러가지 對話를 좀 나누고 나왔읍니다만 한마디로 그 때의 李 大統領에 대한 나의 印象은 原子力課를 新設한데 대한 그분의 期待와 野心이 매우 컸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朴: 것처럼 大統領이 原子力事業에 대하여 커다

란 관심을 갖고 있었으니 일하기는 좋았겠습니다.

尹: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나는 그 때에 大統領의 이러한 야심과 學者로서의 내 자신의 야심을 합쳐서 이때에 좀 우리나라의 科學 발전에 대한 터전을 만들어 보겠다는 결심도 하였읍니다.

朴: 그런데 原子力研究所의 草創期에 李東寧이 영국에서 돌아와서 Accelerator를 만든다고 할 때에 그 분이 한국에 돌아 온것은 原子武器를 만들기 위해 왔다는 소문이 閑間에서 떠돌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尹: 아닙니다. 李東寧의 加速裝置에 대한 研究는 그러한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大統領을 만났을 때도 그 분이 原子彈에 관한 質問을 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약간 주고 받은 기억이 납니다만 그러한 문제는 專門家의 입장에서 볼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요원한 이야기였고 그것에 앞서서 해야할 기본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山積해 있었읍니다.

朴: 그 기본적인 문제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尹: 그게 바로 처음 말씀드린 대략 다섯가지 일들이지요.

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原子法에 관한 이야기부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에 말씀이 朴局長께 原子力課의 新設을 처음 進言하였을 때에 原子力法案도 만들어 드렸다고 하셨는데 기록을 보니 原子力法이 閣議에서 議決된 것이 1956년 6월입니다. 이렇게 議決된 최초의 原子力法이 그대로 國會를 通過한 겁니까?

尹: 아닙니다. 처음 것은 朴局長이 빨리 만들라고 재촉했기 때문에 거의 日本原子力法을 모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57년경에는 우리의 見聞이나 視野도 넓어지고 우리의 主見도 생기고 構想도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國會를 통과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최초의 原子力法이 閣議를 거쳐 國會로 移送되었으나 國會에서 審議保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原子力法을 改正하는데 당시에는 Study Group도 있고 實務職員도 있고 또 外務部를 통해 이에 대한 海外情報과 資料를 얻는

協助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適合한 法으로 다시 연구하고 검토해서 國會에서 이것을 修正通過 시키도록 했읍니다.

처음 制定公布된 原子力法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 때 그러한 法을 우리 뜻대로 修正해 만들기 위하여 내가 자주 國會를 出入했고 出入하다보니 여러 國會議員들과도 알게 되고 國會議長도 몇 번 만남 일이 있었읍니다.

朴: 그렇게 活動하는 과정에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尹: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지요. 그때 朴局長이 行政體制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루는 나를 부르더니 <尹 課長, 原子力院은 規模가 너무 작으니 이 機會에 文敎部처럼 科學法을 만들어 科學部로 하는 것이 어때?> 하기에,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곧 國會議長인 李在鶴 議長을 찾아 뵈고 그러한 意見을 꼭 設明했읍니다. 끝까지 조용히 듣다가 하는 對答이,

<이 사람아, 그거 단계적으로 하게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하지 말고. 우선 原子力院을 만들고 다음에 점차적으로 크게 만들어야지, 처음부터 크게 만들었다가 할 일도 없고 하면 그것도 곤란하지 않아.>

하기에 더 설명도 못하고 그대로 나왔던 일이 기억납니다.

科學部에 대한 希望은 當時의 文敎部長官 崔奎南도 갖고 있었던것 같아요.

그러한 처음의 뜻은 이루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하고져 한 原子力法은 대체로 그대로 됐읍니다. 그러한 原子力法이 國會를 통과하여 이 世上에 誕生하게 된 것이 바로 1958년 2월입니다.

朴: 듣고 보니, 처음 우리가 가져 본 原子力法을 起草하고 그것을 國務會議과 國會에 過通 시키느라 그 당시에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는가 하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原子力法에 관한 것은 이만하고 原子力院의 廳舍와 原子力研究所의 敷地選定에 관한 것을 다음 機會에 또 이야기 듣기로 하겠읍니다. (다음쪽에 계속)